



#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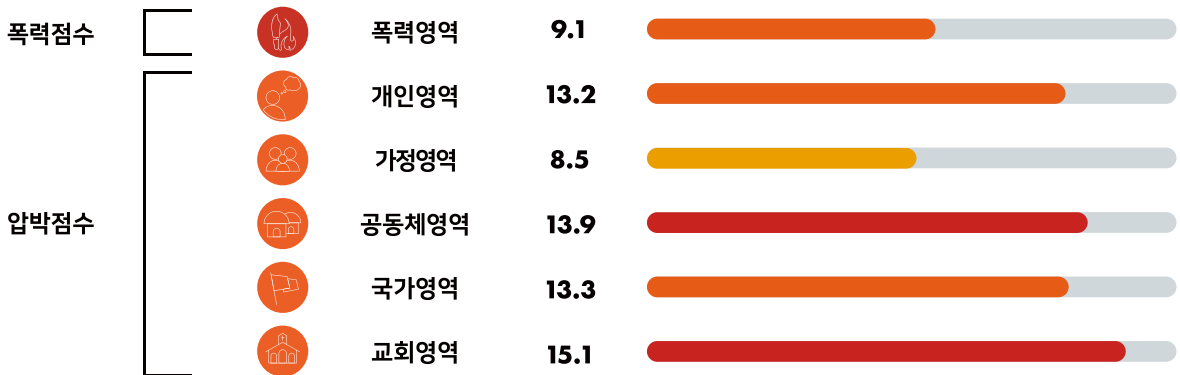
## 쿠바 (CUBA)

기독교 박해지수  
**26**위



©Alamy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 중요한 발견

1959년 이후로 쿠바는 공산당의 통치를 받아왔으며, 이들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교회를 통제하려 한다. 정부는 반대 의견이나 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교회 지도자나 기독교 활동가가 정권을 비판할 경우, 체포되거나 중상모략을 당하고, 이동이 제한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며, 정부와 그 지지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이때 흔히 '비난행위(repudiation acts)'라 불리는 공개적인 모욕이나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교회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축소하려는 목적에서, 새로운 교회 등록이 일반적으로 거부되며, 이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불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특히 지역 사회에 유익을 주는 활동을 벌이는 교회일수록 그 활동은 감시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허가증 발급 거부, 벌금 부과, 재산 몰수, 예배당 철거 및 폐쇄(가정 교회 포함)와 같은 제재를 가한다.

# 쿠바 (Cuba)

## 국가 정보

지도자 : 미겔 디아즈-카넬 베르무데스  
인구 : 11,175,000명  
기독교인 수 : 6,843,000명<sup>1</sup>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공산국가



## 국가 상황

| 종교 상황 | 신자 수 (명)  | 비율 (%) |
|-------|-----------|--------|
| 기독교인  | 6,843,000 | 61.2   |
| 기타 종교 | 1,937,510 | 17.3   |
| 불가지론자 | 1,879,000 | 16.8   |
| 무신론자  | 475,000   | 4.3    |

출처<sup>2</sup>

2019년, 쿠바 유일의 합법 정당인 공산당 대표들로만 구성된 국가평의회는 만장일치로 미겔 디아즈-카넬을 국무평의회 및 각료회의 의장으로 선출하며 60년에 걸친 카스트로(Castro) 가문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쿠바를 '특별우려국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이 헌법은 공산당의 쿠바 사회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명시하고 사회주의를 국가의 불가역적인 지도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국의 정책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2022년 5월 새로운 형법을 제정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이 형법에는 활동가들을 침묵시키고 투옥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조항들과, '헌법 질서와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형벌,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측면"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건 시스템 붕괴,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정과 같은 정책 실패로 인해 반정부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 시위는 2024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규모 또한 확산되고 있다(Justicia 11J, 2024년 3월 21일 기준).

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WCD) 2024년 추산에 따르면 쿠바 기독교인의 88.7%가 가톨릭 신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0.5%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오순절 교회(Pentecostal Church)와 연계된 교단들을 포함해, 다른 개신교 교파들도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가시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며 수용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가톨릭과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은 양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시위와 인권 옹호 활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교회가 받는 외국 기부금은 매우 적은 편이며, 이마저도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된다. 이러한 후원은 벌금 부과나 괴롭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교회에 전달된 비금전적 기부물품은 정부에 의해 압수되어 재판매되거나 심지어 파기되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인 사업가들(대부분 목회자들에

<sup>1</sup>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sup>2</sup> 기타 종교로는 중국 민간 신앙, 신종교(New religionist), 시크교(Sikh), 영령신앙(Spiritist), 도교(Taoist), 유교(Confucia) 등이 있다.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그들의 소규모 사업체는 자영업자에게 금지된 125개 항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벌금을 부과받거나 폐쇄 조치를 당하기도 하며,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당하기도 한다.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특히 강한 억압을 받고 있다. 일부 신부와 목회자들은 보안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물리적 폭력을 당했으며(Marti Noticias, 2022년 2월 11일), 비난행위(Cuba Net, 2024년 4월 28일), 감시(BBC, 2024년 4월 16일), 정치범 수감 중 학대(Infobae, 2023년 6월 23일) 등을 겪었다. 이들의 주택과 교회 건물은 훼손당하고, 다수가 강제 이주를 겪고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은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기독교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이들, 그리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 역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쿠바는 미국과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양국 외교 관계 정상화를 시도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상업·경제·금융 분야에서의 제재를 유지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2021년 7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쿠바 당국의 탄압에 대응해 대(對)쿠바 제재를 강화했으나, 2022년 5월에는 일부 정책을 완화했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월드 와치 리스트(WWL) 2025 보고 기간 동안,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 사례는 쿠바 전역에서 보고되었으며, 특히 동부 지역과 수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해외이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의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는 로마 가톨릭교회,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등으로 구성된 개신교 공동체가 포함된다. 이들 교회는 감시 대상이며, 공산주의 이념에 반하는 설교나 자료가 발견되거

나 시위대, 특히 청년층을 지지할 경우 국가의 반발에 직면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동원된 교회 지도자들, 이념적 압력 단체, 정권 지지자들에 의해 비난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이 범주에 속한 일부 교회들은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정권 구조의 일부인 쿠바 교회협의회(Council of Churches of Cuba)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미등록 또는 비전통 교회 집단과 동일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는 교파를 초월해 개종한 이들, 또는 산테리아(Santeria)나 공산당 출신의 개종자를 포함한다. 이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회에 속하거나, 해당 교회의 지도자가 반혁명 인사로 여겨질 경우,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보복 조치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위협과 적대적 분위기를 통해, 개종을 억제하고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주로 오순절 및 복음주의 교회들로 구성되며, 침례교회도 포함된다. 이들은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하는 도전과 더불어, 공식 등록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누리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이들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억압과 괴롭힘을 당한다.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어떤 활동도 처벌이나 벌금 부과로 구실로 이용된다. 특히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 위험이 더 크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며, 정권에 의해 발각될 경우의 결과를 늘 두려워해야 한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 공산주의 및 탈공산주의 억압과 세속주의적 불관용의 결합

쿠바 혁명(1953~1958) 이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정치·경제적으로 그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채택된 헌법은 쿠바 공산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는 종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이 공산당 이념에 복종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로 이어진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표적이 되어 억압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운 가족법의 시행으로 인해, 성경적 가족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향한 사회적 불관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 부모가 정부가 장려하는 이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 팔레스타인,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타국에서의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교회의 설교조차 당국에 의해 통제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 독재적 편집증

쿠바 공산당이 헌법상 유일하게 인정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지도부의 권위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은 — 그것이 신앙적 이유이든 아니든 — 정권의 적으로 간주된다. 기독교인들은 정권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조차 받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거스르는 행동을 강요받는다. 부패와 면책 특권은 공산당 권력의 완전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모든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보장할 독립적인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교단의 기독교인들(가톨릭 교회를 포함해)은 정권의 보복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정당한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기독교 여성들은 종종 보다 보수적인 성적 가치관, 특히 낙태에 대한 입장 때문에 도전을 받는다.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여성 활동가들은 해고, 협박, 감시의 대상이 되기 쉽다. 경찰은 정치범 가족들이 조직한 단체인 '흰옷을 입은 여성들(Ladies in White)'을 여전히 예배에 오가는 길목에서 학대하고 구타하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정부에 의한 구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 남성

기독교 남성들, 특히 남성 목회자들은 지도자적 위치에 있고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포되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21년 7월 시위 이후 구금 사례가 급증했으며, 특히 많은 청년 남성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 남성들은 구타, 체포, 기독교 문헌 압수, 재산 파괴, 살해 협박 등을 경험한다. 의무 군 복무 과정에서도 신앙이 드러날 경우 기독교 남성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이때 차별이나 박해의 정도는 지휘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기독교 서적, 교리, 종교 의식에 대한 접근 제한
- 사업/직장/취업 접근에 대한 경제적 괴롭힘
- 마을이나 도시에서의 강제퇴거
- 양심에 반하는 군 복무 또는 민병대 징집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
|------------|-----------------|---------------------|
| 2025       | 26              | 73                  |
| 2024       | 22              | 73                  |
| 2023       | 27              | 70                  |
| 2022       | 37              | 66                  |
| 2021       | 51              | 62                  |

평균 압력 점수는 매우 높은 수준인 12.8점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WWL 2024에서는 8.7점이었던 폭력 점수가 2025년에는 9.1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남치나 성희롱 등 새로운 폭력 범주에서의 사례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미등록 교회 소속 기독교인을 정권의 적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억압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식이 반영된 결과다.

전반적으로 국가 점수는 73점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65년간의 공산주의 독재로 인한 광범위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로서 교회가 겪는 높은 수준의 괴롭힘 때문이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역으로 인해 자주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보복을 당하며, 특히 공산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열악한 생활 조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 되기 쉽다.

##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3월, 아바나(Havana):** 로마 가톨릭 사제 호르헤 루이스 페레스 소토(Jorge Luis Perez Soto)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중한 상태의 기독교인을 방문하기 위해 마누엘 파하르도 병원(Manuel Fajardo Hospital)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이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 **2024년 3월:** 부활절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거리 행진을 계획한 여러 가톨릭 및 복음주의 교회들이 쿠바 공산당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비야 클라라(Villa Clara), 베다도(Vedado), 바야모-만사니요(Bayamo-Manzanillo) 지역에서 내려졌으며, 당국은 거리 군중 집결을 통한 시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6월:** 6월 4일 보고서에 따르면, 팔마 소리아노(Palma Soriano) 교도소에 수감 중인 로렌소 로살레스 파하르도(Lorenzo Rosales Fajardo) 목사는 수감 중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수감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는 2012년부터 지역 시위에 참여한 뒤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 왔고, 2021년 12월 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공격 또는 폐쇄된 교회 및 기독교 건물 | 정부에 의해 구금된 기독교인 | 정부에 의해 수감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
|------------|-----------------------|-----------------|------------------------|------------------------|
| 2025       | 13                    | 69              | 28                     | 19                     |
| 2024       | 12                    | 45              | 30                     | 24                     |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 개인 영역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한 신앙 표현은 국가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검열은 더욱 심화되었고, 인터넷 접속 제한이나 여행 금지 조치가 시행되어 타인에게 신앙을 나누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쿠바인은 SNS 이용이나 전화 통화가 당국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자기검열로 이어진다. 기독교 인권운동가 및 정권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은 자의적 체포나 가택연금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가족 및 교회 공동체와의 분리가 발생한다. 가택연금 중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경찰의 철저한 감시 아래 고립되어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가족 영역

국가는 자녀 교육의 주체로 간주되며, 학교에서는 공산주의 교육이 의무적이다. 모든 학생은 매일 아침 “우리는 체(게바라)처럼 될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맹세해야 한다(체 게바라는 공산주의 상징 인물). 법에 따르면, 자녀를 국가의 공산주의적 가치관이나 가족에 대한 이념적 지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경우, 부모는 심문, 협박, 체포, 수감, 심지어 자녀의 양육권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 인권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혁명의 적”의 자녀로 간주되어 위협을 받거나, 심문, 구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정권에 반대 입장을 보인 기독교인은 가족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결과 가족이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

## 공동체 영역

정권 지지자들과 활동가들은 기독교인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한다. 신앙에 기반한 의견을 표현했거나 반정부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어 감시, 취업 차별, 의료 서비스 제한,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 지원금 제한, 심문 등의 표적이 된다. 이는 집권당에 반대하는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혁명 방어 위원회(Committees for the Defense of the Revolution,



CDR)’는 정부의 주요 정보 수집 조직으로, 시민들과 공산당 활동가, 공무원들의 협조를 통해 반공산주의 사상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학생은 (기독교인을 포함해)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필수 교과 과정으로 학습해야 하며, 이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강제적인 사상 주입에 저항할 경우, 교육 과정 중단 등의 위협을 받는다. 공무원이 기독교인에게 더 적은 제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거래”일 뿐이며, 실질적인 위협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금전 요구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벌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가 영역

쿠바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며, 특히 최근에는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370호 법령(Decree 370)」, 새 형법 및 새 가족법의 시행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의 인권 및 시민권 침해를 비판하거나,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할 필요성, 결혼의 신성함(가족법 국민투표와 관련), 카스트로 가문 관련 스캔들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기독교인, 기독교 단체, 종교 자유 옹호자, 기독교 인권운동가들은 체포, 차별, 중상모략, 자의적 구금, 벌금, 기소, 여행 제한, 검열, 재판상 불공정한 대우 등 다양한 탄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억압을 겪는 많은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은 비등록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히 쿠바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 in Cuba) 및 기타 새로운 기독교 단체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 쿠바 정권은 사법 체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판결은 항상 국가에 유리하게 내려진다. 이는 정권의 면책을 보장하며, 그 결과 기독교인의 절차적 권리, 즉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교회 영역

쿠바 내 교회 중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곳은 소수에 불

과하며, 이는 대부분 1959년 공산혁명 이전에 등록된 교회들이다. 혁명 이후 대부분의 경우 교회 등록은 거부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해당 지역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이미 존재하거나, 신청자의 활동이 '공익'에 반한다는 점(즉, 공산당 이념에 어긋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등록을 거부당해 불법 단체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미등록 교회들은 벌금 부과에서부터 조직 폐쇄, 지도자에 대한 기소, 재산 압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다. '혁명의 적'으로 간주되는 교회나 종교 지도자에게는 어떠한 허가나 승인도 자의적으로 거부된다. 정부의 보복 가능성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공공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가족법 국민투표 및 그 적용 사례 등), 정치범 지지, 빈민 구제, 인도적·경제적 위기 해결 촉구, 심지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평화를 위한 기도까지 공공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대상이 된다. 설교는 끊임없이 감시받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공산당 정부에 의해 철저히 제한된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쿠바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쿠바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은 신앙을 이유로 직장에서 괴롭힘과 차별을 겪으며 (ICCPR 제26조)
-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ICCPR 제9조 및 제19조)
- 체포된 기독교인은 구타를 당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ICCPR 제18조 및 제10조)
- 기독교인 아동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을 받는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및 제24조)

## 쿠바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산테리아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 특히 미등록 단체인 쿠바 자유 요루바 협회(Free Yoruba Association of Cuba) 소속 구성원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괴롭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 대표들 또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예를 들어 여행 허가가 거부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오픈도어의 쿠바 사역

오픈도어는 쿠바의 박해받는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성경 및 기독교 서적 배포
- 생계 지원 프로젝트
- 성경 교육
- 약화된 교회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
- 교회의 자립성을 높이고 해외 원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발 및 회복력 강화
- 아동, 은퇴한 목회자, 목회자 가족을 위한 돌봄과 지원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